

# 사진의 기록성과 예술성에서 본 지리사진

김 주 환\*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 Photos

Kim, Joo-Hwan\*

**요약** : 지리학에서 이용되는 사진을 넓은 의미에서 「지리사진」이라고 말한다. 지리사진이란 학술사진의 일부로서 지리학 연구나 교육에서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상이나 장소의 파악, 지표현상의 분석에 이용되는 사진으로서 이들 목적에 맞도록 과학적 논증의 증거로서 충분한 지리적 내용이 있는 사진을 말한다. 지리 사진을 촬영할 때는 촬영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해야하고 촬영대상에 맞는 렌즈와 필름을 선택하며, 시간과 공간을 강조할 때는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번 촬영해야 한다. 지리사진의 기록성은 객관적인 기록과 주관적인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지리사진에는 지리적인 사상에 대한 작가의 가식없는 안목이 정리되어야 하며 솔직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즉 지리철학이 담긴 사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지리사진은 지리적인 안목을 가진 사진작가의 주관적인 판단과 예술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독자성이다. 지리사진도 피사체가 지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일 뿐 사진이 갖추어야 할 예술성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진을 지리학 연구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단시간내에 시각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사상과 내용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주요어** : 지리사진, 기록성, 예술성, 지리철학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theory of photogeography.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hotos and fine arts, but lots of differences. For examples photos are arts of cognition, analytic media and time. Geographic photos are photos useful for geography. Geographic-photos are a kinds of academic photos which deals with special meaning of geographic phenomena and cognition of the certain area. According to the nature the photos available for geography, can be grouped into geographic photos and general photos. Geographical ideas, photographic skills and artistic senses are necessary to the photogeographers. Geographic photos are useful for research and educational purpose. The aspect of research is related to the systematic geography, for example ; geomorphology, historical geography etc. In conclusion, to the photo geographer the geographic idea is more necessary than the skill of photography.

**keyword** : photogeography, geographical idea, photogeographer

### 1. 서론

#### 1) 연구목적

地理學은 장소에 관한 학문이며, 장소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된다. 따라서 장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연구자료로서 축적,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단으로는 언

어, 지도, 스케치, 그래프, 사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사진은 다른 전달 수단과는 달리 현장의 풍부한 자료를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기록해 주는 「데이터 뱅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石井實, 1988)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학과 사진과를 접목시켜 사진을 통한 효율적인 지리학습을 전개할 수

\* 동국대학교 교수

있는 기초 이론을 정리해 보려는 것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2. 사진의 위상

## 1) 사진과 미술의 연관성

사진과 미술의 연관성은 산업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탈바꿈하는 시대적 추세로 서로간의 상호 침투와 융합작용이 가속화 됨으로써 이러한 경향의 작품이 날로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사진이라는 한가지 장르 속에 안주하기에는 사진가의 예술적 충동이 강렬하고 또한 내면적인 의식이 복잡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60년대 부터 현대 사진은 영상언어가 중층적인 복합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같은 부류의 예술가가 사진을 표현수단으로 더욱 접근해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진을 사진 분야에서는 미술적 사진이라고 칭하고 미술에서는 사진적 미술이라고 부른다. (육명심, 1988)

70년대는 사진과 미술의 연관성이 새로운 경계선을 긋는 역사적인 분수령이다. 70년대 부터는 사진과 미술이 구조적으로 통합된 중립적인 시각예술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은 영상시대 도래에 의한 시대적 산물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속에서 출현한 새로운 물결은 미술적 요소와 사진적 요소가 융합된 특이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육명심,1988)

또한 사진과 회화의 차이는 첫째, 사진은 인식의 예술이고 회화는 창작의 예술이다. 둘째, 사진은 분석적매체이고 회화는 종합적인 매체이다. 셋째, 사진은 시간예술이고 회화는 공간 예술이다. 넷째, 사진은 과학을 바탕으로 하지만

회화는 과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다섯째로 사진은 회화와는 제작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한정식,1991)

미술은 사진이 지닌 기능을 현실 환기의 이미지로도 혹은 전달의 미디어로도 구사하며 미술 자체를 더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며, 한편 사진은 사진대로 미술에 기여하면서 독자적인 사진세계를 개척하여 사진이란 짧은 역사에 전통을 굳혀가고 있다. (권진희, 1986)

## 2) 사진의 특성

사진의 특성은 여러가지를 들수 있겠으나 첫째, 사진의 바탕은 감광제이다. 즉 사진의 생명은 감광제의 미술로 탄생이 된다. 그리하여 사진술은 오늘날 실용면과 과학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또한 예술성조형사진의 방편으로도 응용된다. 둘째, 사진은 시각예술이다. 즉 사진은 기계성, 광학성, 화학성, 전자 등 외에도 과학적인 여러 요소로 이루어지므로 좋은 사진이란 곧 미적인 구성과 제작상의 기교,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내면성 등으 3자가 잘 융화되어야 한다. (김용필, 1984)

사진술은 사실상 어떠한 표현도 미치지 못하는 뛰어난 묘사성이 있다. 한 장의 사진은 시공, 거리감,국경을 초월하여, 온 인류가 공감되는 시각언어로서 불후의 걸작들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뿐아니라 실증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여 학술과 문화 창달에 공헌한다 (김용필, 1984).

## 3) 현대 사진의 이해

20세기의 현대 사진은 그 뿌리를 리얼리즘의 바탕 위에 두고 있으며 그 골격은 인간이 당면한 현실의 반응이며 반영이다. 그리고 현대 사진

의 기점은 엄격한 의미에서 1950년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영상주의 사진가들에 의해 현대 사진 예술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룩한 시기이다.

현대사진의 제1기는 사진 발명초기 184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100여년으로 당시의 사진은 한마디로 기능적 리얼리티를 자각한 시기이다. 제 2기는 1950년대 이후로서 종래 리얼리티의 사실성과 진실성이 기계적 기록이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아래 속박된 허구적임을 지적하고 이를 탈바꿈하여 소위 공간성에 의한 새로운 영상사진의 시대로 변천한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이후의 사진 표현의 양상은 시공의 통합체로서 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다난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강상규, 1990)

#### 4) 사진성과 사진의 가치

현대에 있어서 사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훌륭한 사진이란 자기가 창작한 것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며, 그 사진은 인생 전체를 느낄 수 있는 진실의 표현이다. 사진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이며 필름의노광과 순간 그 이전에 존재한다. 따라서 그 의의 있는 순간을 인식하며 올바른 순간을 알아 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최 민식, 1988)

위대한 기록 사진은 내일의 역사자료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며 이러한 사진은 사진가의 사상을 통하여 잘 표현 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사진, 훌륭한 사진의 가치판단은 그 의도나 사용 목적에 의하여 차이가 난다. 사진은 독자의 사진적 공간과 시간을 지닌 것이며, 그 생리를 살림으로써 훌륭한 사진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최 민식, 1987)

### 3. 지리사진의 내용과 범위

#### 1) 정의

지리학에서 이용되는 사진을 넓은 의미로 「지리사진」이라고 한다. 이시이미노루(1988)는 지리사진을 「학술사진의 일부로서 지리학 연구나 교육에서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상이나 장소의 파악, 지표현상의 분석에 이용되는 사진으로서, 이들 목적에 맞도록 과학적 논증의 증거로서 충분한 지리적 내용이 있는 사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실제로 모든 사진은 지리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리사진은 지리적인 정보가 함축되어 있을뿐 아니라 지리적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지리적 의미와 내용등을 나타내고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지리학자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진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진기술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눈 즉 사진에 가장 효과적인 주제를 찾아내는 능력이었다. 지리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피사체를 영상화 할 수 있는 공간의식이며, 이것은 지리사진의 특수성을 인정받게 되는 토대가 된다(김선희, 1995).

#### 2) 대상과 내용

지리사진의 대상이나 내용은 사실 다양하다. 간단히 표현한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세계」속에서 어떤 지리적 의미를 갖는 장소, 특히 지리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진으로서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지리사진은 과학적인 정밀성과 예술성이 겸비되어야 한다. 사진이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면에만 치중되면 이것은 지리사진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다. 지리적 내용도 표현하면서

동시에 예술성이 가미 되어야만 그 사진은 지리적 사진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리사진은 그 내용상 크게 지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 지역성을 나타내는 것, 표본적 사물을 표시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연옥, 1992)

결론적으로 지리사진은 지리적 내용도 충실히 표현하면서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상이 충분히 가미된 예술성이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 (곽영호, 1994)

### 3) 분류

지리학에 이용되는 사진은 그 성격상 크게 地理寫眞과 一般寫眞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상으로는 크게 靜寫眞과 動寫眞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單寫眞, 슬라이드, 航空寫眞, 衛星寫眞 등은 정사진에 해당되며 비디오, 영화 등은 동사진에 속하는 것이다.

地理寫眞은 결과적으로 지리적인 정보가 찍혀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확실히 그러한 정보를 찍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지리연구자는 지리적인 제요소로부터 구성되어 있는 장소를 어떻게 관찰해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리사진은 지리연구자의 눈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촬영대상이며, 지리연구자가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사진이다.

寫眞地理學者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사진을 지리학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보다 효과적인 지리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할 수 있는 예술적 감각 등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곧 사진지리학이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김주환, 1993)

지리사진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교육에 이용되는 경우로 초·중고·대학등

의 교육현장에서 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진이다. 둘째는, 연구에 이용되는 경우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사용되는 사진으로 기술된 내용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사진들로 사용--자가 설명을 붙이지 않으면 이해가 곤란한 전문사진들이 될 것이다. (김추윤, 1993)

이시이미노루(石井 實)에 의하면 지리학에서 이용되는 사진은 지구 규모의 광대한 범위를 파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성사진과 지도제작이나 토지이용조사 및 지형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항공사진이 있으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촬영한 경관사진으로서 보다 협소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사진이 있다. 지리사진은 地理的事象을 전달하는 기호이므로 이 기호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박희두, 1994)

### 4) 촬영과 조건

지리학 연구자가 야외에서 연구를 위해 기록이나 자료로서 地理的事象을 촬영할 경우 그때의 사진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주관적이 되고 의욕적인 것이 되기 쉽다.(石井 實, 1988)

地理寫眞의 촬영은 우선 그 목표물을 발견, 포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무엇을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 어떤 지리적 경관이 있을까 하는 관심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지리사진의 촬영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 첫째, 촬영 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한다. 둘째, 촬영대상에 맞는 렌즈와 필름을 선택한다. 셋째, 시간적·공간적 변화과정을 강조할 때는 동일한 장소에서 수차례 촬영한다. 넷째, 필요한 경우 축척을 알 수 있도록 스케일을 적절히 활용한다. 다섯째, 촬영일지를 자세히 작

성한다.

촬영된 사진을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지리사진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훌륭한 사진촬영 못지않게 사진정리에 신경을 써야하고 그 방법도 꾸준히 개발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데이터베이스화 할 경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일련번호·제목·촬영날자·장소·필름형태 등이다. 주요 지리사진을 효과적으로 분류, 보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사진지리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김주환, 1993)

즉 사진을 촬영하여 지리사진으로 이용하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제삼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말은 곧 지리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하며 교육적 효과를 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과 일치한다. 나아가서 지리적인 내용과 교육적 효과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성을 지닌 사진이었을 때 한층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로 연구자 자신이 촬영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김주환(1993)은 “지리학자에게는 사진을 지리학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는데, 결국 이 점 역시 같은 경관이라 해도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기법상의 문제도 내포되지만, 사물을 항상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평상시 태도의 필요성까지도 내포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연구자의 의도가 분명하여 먼저 경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사진속에는 연구자가 의도한대로 경관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들어 있어야 제삼자가 이해를 하는 데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셋째로 지리사진이라고 한다면 경관이나 일

정사물에 대하여 확대하거나 또는 과장하는 기법을 동원해서는 곤란하다. 지리사진은 기본적으로 찍힌 내용 그 자체가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박희두, 1994)

## 5) 이용

아무리 훌륭한 地理寫眞을 촬영했다고 해도 그 사진을 적절히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地理寫眞의 이용은 크게 지리학의 研究的 측면과 地理教育的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지리학의 연구적 측면에서는 계통지리학 분야 예를 들면 地形學, 氣候學, 文化地理學, 環境地理學, 土壤地理學 등의 분야에서이고 지리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사진자료 중 자리교육의 대상과 주제에 알맞는 사진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지리교육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때는 교육대상이나 주제에 따라 사진의 종류, 사진의 크기 등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김주환, 1993)

## 4. 지리사진의 기록성

### 1) 객관적 기록

사진이 사회와 역사를 바로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삶 자체를 올바른 관점에서 영위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확한 지리사진은 객관적인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리사진은 당대의 사회현실을 올바르게 보여주며 인간과 사회, 역사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어야 한다. 사진이란 인간의 본연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양식이며, 시각과 상상력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형식을 창조하는 기술이

며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작품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진과 사진작가와 삶의 관계이다.

지리사진에는 지리적인 사상에 대한 작가의 가식없는 안목이 정리되어야 하며 솔직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즉 지리철학이 담긴 사진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정리되었을 때에 지리사진의 기록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 주관적 기록

리얼리즘사진은 사회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인간의 마음에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 냉철한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세계의 사진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 삶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인간 탐구의 기록임이 확실하다. 사진이 있는 곳에 인간의 생활이 있고 인간의 생활이 있는 곳에 그 호흡을 담은 사진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사진은 결코 단순한 생의 기록만이 아니고 적어도 거기에는 체험으로 꿰뚫은 삶의 호흡소리가 있어야 한다. 사진은 솔직한생명의 기록이요, 가식없는 삶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지리적인 안목을 가진 사진작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리사진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고 생각한다. (최민식, 1991)

사진의 가치는 기계적인 형태를 통한 기록성에 있다. 카메라를 사용해 앞에 있는 피사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촬영을 해도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에 영상이 정지되고, 광학렌즈를 통해 그 영상은 광학적인 정확성을 띄게 된다. '기록'이란 보통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를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다. 이렇듯 그 기록에 대한 가치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진의 가치는 오랜 세월의 무게라고도 말할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옛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오랜세월을 지낸 만큼,

사진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 되고,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촬영한 것은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이 된다. 사진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사진은 기록성에 국한된 내용만이 아닌, 또다른 어떤 가치가 있음에 틀림없다.

## 5. 지리사진의 예술성

### 1) 창의성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사진의 발명초기부터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사진이 하나의 창의적인 관념을 본바탕으로 이루어졌을때 사진은 명백한 예술작품이 되는 것이며 그창작행위는 곧 예술활동인 것이다.

사진은 바로 과학기술과 예술이 맞닿은 곳에 존재하며 우리는 사진의 매개체적인 카메라의 기계적인 요인과 과학의 소산인 렌즈 그리고 화학적인 처리로된 필름과 현상약등에서 사진에 대한 과학기술의 공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진의 미학적인 가치와 내포된 뜻과 인간의 식견을 집중시키는 요소등에서 사진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표현수단으로서의 사진이 근본적으로 기계적이냐 예술적이냐 하는 것은 속단하여 단정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양자의 통합이 없이는 훌륭한 사진의 예술성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예술을 예술로 볼 따름이지 사용한 재료나 제작방법은 문제로 생각지 않는다.

사진의 예술성을 한마디로 정의 할 수는 없으나 역사적인 발달근거를 통해서 이미 실증된 바 있다. 사진이 탄생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양대산맥은 기록성과 예술성이다.

지리사진도 피사체가 지리적인 설명이 가능

한 것일뿐 사진이 갖추어야 할 예술성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화면구성등에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 2) 독자성

1950년대말을 분수령으로 현대사진은 전향점을 맞게 된다. 지금까지의 기록 보도사진은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도달하느냐, 또는 어떻게 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 하느냐에 있었으나 이들은 각체에 대한 주체의 철학적인 해석을 화면에 영상화시키는 것이다. 그 이후 오늘날의 사진은 메카니즘의 급격한 발달로 과학적인 새로운 분야의 영상사진을 비롯하여 표현은 다양화 자유화가 되었고 사진의 예술성과 기록성은 융합된 상태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카메라와 필름을 모체로하는 사진예술은 카메라 자체의 메카니즘을 파신하면 사진가가 주체인 만큼 렌즈의 물신화가 되기 쉽다. 사진은 확실히 표현주의적인 예술이지만 사진의 표현문제는 무엇보다 사진가와 주제, 대상과 표현과의 관계에 있고 그 관계는 사진가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의해서 사진예술이 창작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그 시대의 사회적인 표현과 기술, 그 시대가 공감하는 형식, 그리고 사진가의 개성적인 사고가 결합될때, 사진의 예술성은 확립된다. (홍순태, 1990) 지리사진에서의 독자성이란 사진으로 표현된 어떤 지역의 특성이 타지역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정립된 것을 말한다.

# 6. 사진의 표현

## 1) 사진의 주제와 소재

‘주제’란, 사진의 의미, 곧, 사진가가 그 사진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사상이나 감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주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

된 사물, 곧, 피사체가 ‘소재’이다.

작가가 생각하고 느낀 모든 것은 그대로 사진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자연이나 사회의 모든 현상, 사람들의 모든 생활 및 감정 등이 사진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효과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따라서 사진에 알맞은 주제란 시각으로 전달 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주제를 말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것을 찾기보다는 사진에 알맞지 않는 주제를 살피는 것이 쉬울 것이다. 사진에 알맞지 않은 주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정식, 1985) 지리 사진의 주제와 소재는 자연 또는 인문현상을 나타내는 피사체를 말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것은 그대로 사진의 소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무것이나 사진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것이나 찍으면 지리사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을 촬영하는데는 주제를 살려내는데 가장 알맞은 소재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적인 탐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기다린다거나 두번 세번 같은 장소를 찾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진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기술이 아니라, 사물을 지리적으로 보는 눈인 것이다. 사진에 가장 효과적인 주제를 잡아 내는 능력, 그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소재를 알아보는 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소재를 찾고 주제를 찾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진은 ‘발’로 찍는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사진은 ‘발’로만 찍어지지 않으며 ‘발’보다 앞서서 ‘머리’로 찍는 예술이라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정식, 1985) 따라서 지리사진을 잘찍기 위해서는 답사와 지리적인 안목이 필수적이다.

## 2) 사진 창작을 위한 관찰법

사진가는 자기나름의 보는 방법 (art of seeing) 을 가져야 한다. 그의 탐색적으로 꿰뚫어 보는 눈초리는 보통 사람들이 무심코 보는 어떤 장소나 물체 및 사진 등의 의미를 꿰뚫어 본다. 그리하여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통 일에서 특이한 것을 알아내며 뜻이 없어 보이는 것에서 뜻을 찾아낸다.

사진가의 눈이 우리를 주변의 아름다움, 관심거리, 흥미거리 심각한 의미 등을 발견하고 카메라의 능숙한 조작에 의해 그렇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의미나 아름다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두번째 관찰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셔터를 누르기 전에 파인더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창의적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느껴야 할 점은 광선인 것이다. 광선에 대한 연구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만 광선이 밝거나 어두운 상태만을 느낄 뿐이다. 사진가는 광선의 질, 방향, 색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분위기까지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강한 콘트라스트의 광선상태가 좋은지 혹은 부드러운 광선이 유리한지, 또는 찬 느낌이 드는 그들의 광선인가 또는 따뜻한 느낌이 나는 아침 저녁의 광선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 3)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사진표현

1960년대 이후의 현대사진의 전개상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유화, 판화 혹은, 조각과 같은 다른 미디어와 결부하여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넓혀가기 시작한 점에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사진의 주된 가치는 이론상에 두었다. 기록에 관한한 사진 매체를 따라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은 기록원이 말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

록이란 신문이나 잡지가 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스스로의 목적에 따라 할 수도 있으며,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 사진은 기록매체로서의 자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진은 과학을 바탕으로 하며 과학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결국 사진은 과학의 변모에 따라 계속 새로운 분야, 새로운 형식이 개발될 것이고 사진의 외형, 내면도 변모해 갈 것이 틀림없다. 사진 영상 자체의 변모 뿐만 아니라, 사진술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 TV, 홀로그래피 처럼 또다른 영상예술의 탄생을 기대하여야 하고 또 사진과 화상의 복합적인 영상처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 (홍 상택, 1991)

## 7. 요약 및 결론

지리학은 장소에 관한 학문이며 그에 관한 정보는 사진을 통해서 전달 보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과 사진과를 접목시켜 사진을 통한 효율적인 지리학습을 전개할 수 있는 기초이론을 정리해 보려는 것이다.

사진과 회화와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였으나 그 차이점 또한 분명하다. 즉 사진은 인식의 예술이고 회화는 창작의 예술이며, 사진은 분석적 매체이고 회화는 종합적인 매체이다. 또한 사진은 시간예술이고 회화는 공간예술이다. 사진이 과학을 바탕으로 한다면 회화는 과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사진과 회화는 제작방식이 전혀 다르다.

지리학에서 이용되는 사진을 넓은 의미에서 「지리사진」이라고 말한다. 지리사진이란 학술사진의 일부로서 지리학 연구나 교육에서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상이나 장소의 파악, 지표현



상의 분석에 이용되는 사진으로서 이들 목적에 맞도록 과학적 논증의 증거로서 충분한 지리적 내용이 있는 사진을 말한다.

지리학에서 이용되는 사진은 그 성격상 지리 사진과 일반사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상으로는 정사진과 동사진으로 구분된다. 사진지리학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사진을 지리학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보다 효과적인 촬영기술, 예술적 감각등이다.

지리사진을 촬영할 때는 촬영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해야하고 촬영대상에 맞는 렌즈와 필름을 선택하며 시간과 공간을 강조할 때는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번 촬영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케일을 정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리사진의 촬영에는 연구자 자신이 촬영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연구자의 의도가 분명하도록 촬영될 피사체의 경관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사진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리사진은 연구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에 이용된다. 연구적인 측면은 주로 계통지리학에서 응용되며 교육적인 측면은 지리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된다. 이 때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교육 대상이나 주제에 따라 사진의 종류나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지리사진의 기록성은 객관적인 기록과 주관적인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지리사진에는 지리적인 사상에 대한 작가의 가식없는 안목이 정리되어야 하며 솔직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즉 지리철학이 담긴 사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되었을 때만이 지리사진의 기록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리사진은 지리적인 안목을 가진 사진작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리사진은 예술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독자성이다. 지리사진도 피사체가 지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일 뿐 사진이 갖추어야 할 예술성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여기서 독자성이란 사진으로 표현된 어떤 지역의 특성이 타지역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의 표현에서는 주제와 소재의 파악이 중요하며 혼란 소재는 피하여야 한다. 지리사진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기술 보다는 사물을 지리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진과 같은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대학에서 항공사진, 지리사진등을 이용하여 특히 학위논문에서도 많은 사진자료의 첨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을 지리학 연구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단시간내에 시각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사상과 내용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文 獻

- 강상규, 1990. 11. 현대사진의 방향, 한국사협, 125호, P. 48.
- 고영일, 1990, 사진표현의 새로운 경향, 한국사진, 제121호, P. 70.
- 곽영호, 1994, 交通地理學에서의 寫眞利用, 한국사진지리학회, 사진지리 제2호, P. 66.
- 권동희, 1993, 환경지리학에서의 사진의 이용, 한국사진지리학회, 사진지리, 창간호, P. 40.
- 권진희, 1986. 6. 사진과 미술과의 관계, 사협회보, 제79호, pp. 19 ~ 26.
- 김선희, 1995, 지역지리학에서의 사진이용, 한국사진지리학회, 사진지리 제3호, P. 39.
- 김연옥, 1992, 地理教育研究, 教育科學社.
- 김영길, 1996, 사진의 이해, 한국사진 No. 187. P.60.
- 김용필, 1984. 10. 사진의 특성(1), 사협회보 제64호,

- pp. 50 ~ 51.
- , 1984. 12. 사진의 특성(3), 사협회보, 제66호, P. 43.
- 김주환, 1993, 사진지리학의 연구범위와 과제, 한국사진지리학회, 사진지리 창간호, pp. 10 ~ 14.
- 김추윤, 1993, 水文地理에 있어서 寫眞의 利用, 한국사진지리학회, 사진지리, 창간호, pp. 18 ~ 19.
- 박희두, 1994, 構造地理學에서의 寫眞利用, 한국사진지리학회, 사진지리, 제2호, pp. 19 ~ 26.
- 육명심, 1988. 8. 현대사진과 미술의 연관성(1), 한국사협, Vol. 100, P. 71.
- 육명심, 1988. 9. 현대사진과 미술의 연관성(2), 한국사협, Vol. 100, P. 94.
- 최민식, 1987, 표현의 자유와 사진 창작, 한국사협 제89호, P. 43.
- , 1988. 12. 진정한 사진성의 발견, 한국사협, 제104호, pp. 39 ~ 40.
- , 1991, 삶을 담고 있는 사진의 진실성, 한국사협 제131호, pp. 79 ~ 83.
- , 1995, 예술로서 가치있는 사진, 한국사진, 제182호, pp. 60 ~ 62.
- 한정식, 1985, 사진의 주제와 소재, 사협회보, 제71호, pp. 46 ~ 49.
- , 1991. 12. 사진과 회화, 한국사협, Vol. 138, pp. 93 ~ 95.
- 홍상택, 1991, Computer Graphics에 의한 사진표현 연구, 한국사협, 제133호, P. 94.
- , 1990, 사진의 예술성, 한국사협, 제124호, pp. 67 ~ 77.
- , 1992, 사진창작을 위한 관찰법, 한국사협, 150호, pp. 81 ~ 82.
- 石井實, 1988, 地理寫眞, 右今書院.